

박근혜 시대 개막... “꼭 공약 실천을”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12월 19일 열린 선거에서 총유권자 4050만 7842명 가운데 1577만 3116표(51.6%)를 획득함으로써 1469만 2625표(48.0%)를 얻는데 그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부모님 시절부터 불연(佛緣)이 깊은 박 당선인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은 높다. 박 당선인 역시 9개 부문에 걸친 방대한 불교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의 불교 정책 공약은 조계종이 제시한 정책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 △문화재 보호 예산 증액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 허용 △전통 사찰 규제 완화 △조계사 문화관광지구 계획 수립 △민족 전통문화 보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전통사찰 전반에 대한 정비 대책은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둘 것을 제안했으며, 사찰 중첩 규제 법령들의 개정도 약속했다.

문화재 보호기금을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전제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상응하게 정부의 문화재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약의 이행 여부다. 이명박 대통령도 용주사

일원에 효문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약속했지만, 헛된 약속으로 끝난 바 있다. 이에 박 당선인 측은 12월 5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당시 주호영 새누리당 불교특위 위원장은 “이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덜어내는 등 애초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다.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박 당선인에게 축하와 함께 국민 통합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전통사찰 보존 골자로 한

9개 부문 불교 공약 제시

불교계 “전통문화에 주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20일 발표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국민과 시대에 부응하는 지도자가 돼주길 바란다”며 “우리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가치를 존중하고 다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불교계 인사들도 불교 정책 공약 이행을 기대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대표 법승 스님은 “불교 전통문화가 가지는 가치를 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박 당선인이 노력해 달라”고 밝혔으며,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공약 이행은 예산 문제로 순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발전을 이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팔죽 드시고 액운 다 날리세요!

24절기 가운데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맞아 12월 21일 전국의 사찰에서는 이웃들과 팔죽을 함께 나누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서울 조계사는 3천여명의 팔죽을 불자와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조계사 대종이 이웃과 나눔 팔죽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불화장 석정 스님 원적

12월 20일 부산대양산병원서...동국대 시신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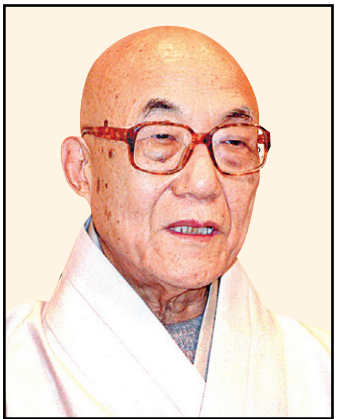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佛畵匠) 기능보유자 석정 스님이 12월20일 오후 11시 52분 경 부산대 양산병원에서 입적했다. 세수 84세, 법남 72세다. 지난 2011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주관한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한 스님의 운구는 동국대 경주 병원에 기증됐다.

스님은 지난 2011년 8월 주석치인 부산 금정구 장전동 선주산방에서 생명나눔 장기기증 서약식을 하며 몸을 기증하는 일은 영원히 사는 길이며 부모에 대한 마지막 효도라는 말로 소감을 전했다.

당시 스님은 “부모에게 받은 유일한 재산인 몸 한 조각이라도 세상에 도움이 돼 배풀 수 있다면 최고의 공양이다. 늙어 쓸모없는 몸이라도 의대생들의 실습 교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증할 수 있으니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을 거 같다”고 밝혔다.

조재부 6재까지는 마산 청평원에서, 49재는 조계종림 송광사서 봉행될 예정이다. 석정 스님은 유훈을 통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빈소도 마련하지 말며 영결식도 갖지 말라. 내 몸은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스님의 유지에 따라 문도들은 모든 절차를 이행했다.

석정 스님은 1928년 강원도 고성



군 신북(외곡강)면에서 출생해 1940년 순천 송광사에서 석두(石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같은 해 불교일석 스님에게 불화를 사사받고 그 다음해 인가받았다.

1969년 부산에서 선서화전을 시작으로 각종 불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으며 대한민국불교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07년 《한국의 불화》 40권을 완간하고, 서울 예술의전당과 부산 국제문화회관에서 ‘연묵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 문화포장(보관훈장)을 받았다.

199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됐으며 2006년 1월에는 단청장에서 분리 독립된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으로 지정됐다.

정혜숙 기자

불국도 경주 남산을 오르다

본지 · 신라문화원 공동 경주 남산 답사

현대불교신문사와 경주 신라문화원은 1월 5일부터 매일 첫째주 토요일 ‘신라문화기행: 경주 남산 불적 답사’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불국도 남산에 산재된 유물들을 탐, 불상, 석화 별로 만날 수 있는 이번 답사는 불자들의 신심 증진과 불교 문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일 시: 2013년 1월 5일부터 매주 첫째주 토요일(총 12회)
- 집결 장소: 경주 신라문화원 오전 9시 출발
- 안 내: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연구소장
- 참가비: 매회 2만원(도시락 지참)
- 연락처: 054)774-1950, www.silla.or.kr

920호 INDEX

종합	2·3
총무원장 선거 간선제 공청회 초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조계종 채신 인사 단행	
2012 종단 결산	
10·27법난 재조명 세미나	
2012 10대 뉴스	5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6·17
광우 스님	
문화	21
제1차 불교음악상 이찬우씨	
달라이라마·스테판에셀	31
‘정신의 진보를 위해’ 대화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

조계종은 12월 1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등이 참석했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군포교 최초 비구니 군승 파송된다

군중교구·비구니회 ‘비구니 군승’ 선발 합의

2014년 비구니 군승 파송이 본격화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와 조계종 군중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12월 12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회담을 갖고 전국비구니회에서 대상을 선발해 추천하면 군중교구에서 1년간 임대 전 교육을 실시한 후 2014년부터 군승으로 파송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식합의에 따른 파송 대상자는 2명이다. 군중교구는 동국대

와 중앙승가대, 강원 재학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요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성화 군중교구 정책기획실장은 “여성장교 비중이 7% 수준”이라며 “비구니 스님 비율을 이에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구니 군승은 140여 명, 7% 수준은 10명 선이다.

파송 대상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임대 기준 35세 미만이어야 한다. 군포교를 원하는 비구니, 사

미니 스님은 전국비구니회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비구니 군승은 교육시설 등에 중점 배치된다. 이를 위해 군중교구는 비구니회로부터 군승파송 대상자를 추천 받아 현행 교육보다 대폭 늘어난 1년의 예비군승 교육 후 파송한다.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군승 파송에 적극 나선에 따라 군승정원 총원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중교구에 따르면 최근 군승 지원자는 크게 감소한 상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을 선택한다!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정직한 행복학 강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생각들…… 이 생각들 속에 행복이 있을까?

우리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 가만히 내게 귀 기울이면 들리는 것이 있다. 그 속에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의 습관과
즐거분하게 이별하기

심리학자 김경호 지음 | 224쪽 | 13,000원

최신간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의 습관과
즐거분하게 이별하기

심리학자 김경호 지음 | 224쪽 | 13,000원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치유하는 불교읽기

원래 의학에서 ‘치유(healing)’라는 말은 손상된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하는 불교읽기’가 우리가 타고난 본래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그리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은경 공저)

서광 스님 지음
288쪽 | 14,000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

반야참회

‘반야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반야참회는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수행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해룡 스님 지음
288쪽 | 13,000원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